

##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2)

- 입을 말씀 계 7:1-8
- 주요 내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이 교회가 아닌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4) 열두 지파가 나오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십사만 사천은 열두 지파에 인침 것이므로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를 뜻한다고 믿는 학자들은 두 가지를 근거로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① 그들은 요한 당시에는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열두 지파” 를 언급한 구절들이 나옵니다(눅 2:36, 행 26:7, 약 1:1). 그런데 지파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알부드는 “12지파는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잃어버려’지지 않았다. 인간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재에도 그 각 지파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 ② 그들은 12지파의 이름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1. 르우벤이 장자인데 유다가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고, 2. 므낫세가 나오면 에브라임이 나와야 하는데 대신 요셉이 나오고, 3. 단 지파가 빠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십사만 사천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창세기 48-49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르우벤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계모와 간통하는 죄를 저지른 결과 장자의 축복을 잃게 되어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창 49:1-4, 대상 5:1-2). 요셉은 실제로 장자가 그랬듯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아닌 유다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은 구속과 관련하여 12지파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요셉과 므낫세가 함께 나온 것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두 지파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나온 이유는 복이 아니라 거룩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열두 형제 중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간 것은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뱀이요 독사라 예언된 단이 빠진 것은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더라도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은 십사만 사천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단이 빠진 것은 십사만 사천이 예수님을 거부한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교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파들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특이사항은 야곱의 예언(창 48-49장)을 사용하여 십사만 사천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으로, 이것을 이유로 그들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 5) 십사만 사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다른 집단이다!

십사만 사천을 교회로 보는 학자들은 십사만 사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데이비드 아우내가 그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i) 십사만 사천이라는 특별한 계산(7:4-8)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7:9)의 광대한 규모 간에는 명백한 대조가 존재한다. 즉 후자는 분명히 전자보다 훨씬 큰 집단이며, 따라서 다른 집단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ii) 전자는 열두 지파 중에서 뽑은 일만 이천 명으로 구성되는 반면, 후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뽑힌 자들이다. (iii) 전자는 땅에 있는 반면, 후자는 하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7:11). (iv) 7:4-8에서 전자는 보호의 인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계 9:4를 보라), 7:9-17에서 후자는 대환난을 승리로 통과하여 하늘의 상을 받는다.”

따라서 십사만 사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집단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 6) 십사만 사천을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4장에서 이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 산은 하늘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땅에 있는 시온 산은 벌써 이방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11:2). 둘째, 14장 4절은 그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고 했는

데,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땅의 시온 산에 서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23장 19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들에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그의 전에 가져다 드려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사만 사천도 처음 익은 열매이니(4절) 그들을 들판, 즉 세상에 남겨두지 않고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시온 산에 들어가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넷째, 성경의 다른 곳에도 시온 산이 천국을 의미했습니다(시 48:2, 롬 11:26 등). 다섯째, 이들이 3절에서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시록 4장의 천국의 보좌 앞 광경입니다. 따라서 시온 산은 천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 전체가 대환난 중에 천국에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통과설이 진리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편, 7장은 땅에 있는 교회를, 14장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사만 사천에 대한 7장과 14장은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7장은 7년대환난 직전이므로 환난 전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을 칩니다. 그들은 그 뒤에 일어나는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9:4).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와 666 표를 강요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들은 거절하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4장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시간순입니다. 그런데 과연 14장의 십사만 사천의 기록도 시간순이고, 정말 그들이 순교하여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일까요? 물론입니다.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십사만 사천은 시온 산에 어린양과 함께 서있다(계 14:1).

시온 산은 천국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 산에 그것도 보좌 앞에 단체로 서 있습니까? 순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② 십사만 사천의 이마에 어린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계 14:1).

하나님의 인을 친 7장과 달리 14장에서는 어린양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3:12)**”라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십사만 사천 명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순교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③ 십사만 사천에 대해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했다(계 14:4).

“어린양”이란 표현 자체가 5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의거할 때 죽음(순교)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이들은 순교하여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올라간 자들입니다.

이것은 십사만 사천이 ‘지금’ 하늘에 있는 교회 전체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통과설이 진리이므로 교회라면 이때 하늘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7) 십사만 사천 명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이다!

① 다니엘 70이레 예언 때문이다.

계시록은 다니엘 70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를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0이레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 정한 기간입니다(단 9:24).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②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 때문이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7년대환난부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두루마리는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 때 열리고, 8장에서 19장이 7년대환난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 기간은 70이레의 마지막 이레로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7년대환난)의 시작 직전에 십사만 사천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십사만 사천의 이마에 인을 친 이유는 보호를 위해서입니다(계 9:4). 그런데 전 삼년 반 때 교회가 출애굽하기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재앙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대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그토록 많은 자들을 미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 ● 나눔과 적용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의 특징은 거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결을 추구하는지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누리는 축복과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